

으로 찾아보아야 할 줄로 믿는바다.

이 建物에 있어서도 柱의 形態는 柱心包系로서 纒縵차가 보이며 마루臺工은 역시 銀海寺 居祖庵 靈山殿에서 찾아 볼 수 있는 類型이 있음을 보아 注目되는 建物이다.

建立年代에 對하여는 우선 獨樂堂의 建立年代가 밝혀지면 自然히香壇年代도 어느정도 推定이 될 줄로 믿어지는 바다.

獨樂堂은 晦齋先生님께서 西紀一五三二년에 建立하시었다. 하면 이 建物은 어떠한 變動을 加하지 않은한 마땅히 獨樂堂의 前後作으로 볼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香壇은 獨樂堂보다는 훨씬 前에 建立되었을 것이며 또한 獨樂堂의 母體型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晦齋遺蹟에 對하여서는 많은 研究가 必要하며 後日 機會를 얻어 詳論하고저 한다.

資料

安靜寺 所藏 萬曆八年銘 銅鐘

金 和 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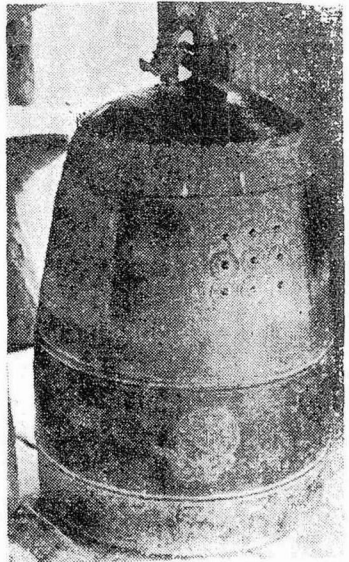
오래 전부터 統營郡內 安靜寺에 壬辰倭亂이전에 鑄造된 銅鐘이 遺存한다고 傳聞하던 중 지난 여름 이 곳을 踏查하여 調査하였기에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安靜寺는 慶南 統營郡 光道面 安靜里에 位置하고 있는데 境內에는 萬歲樓 大雄殿 七星閣等 數棟의 建物이 있으나 모두 오래 되지 않은 建物이었고 入口에 自然石으로 結構된 小規模의 아취가 흥미로웠다.

이 鐘은 萬歲樓에 걸려 있는 總高一一七cm에 達하는 大鐘으로서 鐘身各部에 靑綠銹가 보이나 保存은 良好하다. 이 鐘의 樣式은 韓國鐘으로서의 通式을 따르고 있으니 頂上에는 半破된 音管과 사실적이며 웅전

한 手法를 보이고 있

는 龍鈕가 있고 鐘肩에는 瓣端에 귀꽃이 있는 李朝時代의 紋樣化된 單葉伏瓣의 上帶가 둘러진 上部에는 三山形에 加 變形된 如意頭紋을 周廻하였다.



乳廓은 上帶 바로 아래로 四處에 配置하였는데 乳廓 周圍는 上·下에 珠紋帶를 두른 忍冬紋을 陽刻하였고 乳廓 內에는 珠紋帶를 두른 八葉單瓣 蓮華紋의 九乳가 있다. 鐘身에는 撞座와 銘文이 陽刻되었는데 撞座는 四處에 配置되었으며 三重의 同心圓의 中心에는 卍字가 있고 그 밖의 第二圓에는 小圓內에 陽鑄된 梵字 六字가 周廻되고 다시 連珠가 그 밖에 돌렸으며 밑에는 雲紋이 받치고 있는 形狀이다. 銘文은 乳廓間에 上·下로 三處 下帶 위에 一處 모두 四處에 陽刻되었고 下帶도 역시 上·下가 連珠紋으로 둘러 蓮華·忍冬紋이 裝飾되었는데 現場에서 判讀된 銘文은 다음과 같다.

萬曆八年庚辰八月日

全羅道潭陽府秋月山

龍泉寺上大鐘□□百餘斤「安鈞先」朴春永「高千連」崔信「姜正太」洪非宥非「金大云」金□連「宋若番」溫應伊「崔千」吳金浩「金次鎰」

持音明悟「首僧天寶」持寺太田「直批明立」幹事卍軒「書員成堂」眞玉文幹「化主天引」戒生 性元「莫夫之」羅州非聖傳「宋順伊」全州白家「金千永」洪允伊「餘朴只」馬知伊

道見「石峰 棠道彥」信全「道信」儀女「學文」知还「一訓」南雇「性林」卍書善時「道奉」白仁「道不」信凡「承明」應□「夫暉」明伊「能初」惠信「一朱」萬德「放守」守玄「崇戶」引玉氏田「明云」

玉寶「明寶」大旁「安希」敬心「山來」潭水「性淡」光寶「彥中」云
北

諸緣記「大施主 萬順房仁」大施主 金吉同「大施主 太田」泰仁 柳戒
通「郭秀仁」郭武萬「金自明 安甲」洪云方「性照」德宗「李乃斤」

以上的銘文에 依하여 이 鐘은 萬曆八年 宣祖十四年(一五八〇A·D.)
全羅道 潭陽 龍泉寺 大鐘으로 造成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어느때 安靜
寺로 移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鐘은 鐘身에 銘文이 陽刻되었을

은 菩薩像이라든가 飛天 等의 裝飾이 缺하여 佳作에 屬하지는 못한다. 壬
亂以前의 鐘으로 精確한 年代를 알 수 없으므로 貴重한 資料라 하겠다.

安靜寺에는 銅鐘 外에 銘文은 勿論 裝飾紋樣도 全히 缺는 飯子(徑六
二·五cm) 一口가 遺存한다.

實測值(單位는 cm)

總高 一一七 口徑 七一·五 上徑 四九 鐘身高 九三 撞座徑 十三 上
帶幅 十一·五 下帶幅 十五·五 厚 六·五

法住寺 捌相殿 上樑文

金 東 賢

伏以字四之□□而□

氣之精得五□之□

萬類中居其最□□

之中分舍利之□□

座沙之□白罽中在其

以□既有四梵□□□

□□可無□拾接□

舍殿□廣□□

僧之□信□□

叙還當大住□□

靈心至分□諸人而

坐粟□□七之米
斛施五十之□□午

於天啓□□春論

功於天啓也□之秋

重構五層殿速如

邁營天□挿邦

不知 其□

髣髴若摩訶之

驚嶺寺□稀如

祇園之講堂於是

雲欣水

悅僧顯俗倒明

凡諸見中者員

不與敬眞今

古岑有之勝因緣

也豈非所謂造物

惜之而事者名也

謹具凡諸檀信

反緣化之以萬銜

開列于后書之

者誰也山之僧運

捧畫

信祥

行澄

天啓六年丙

寅六月日

大化主哲云

化主 叙還

化主 裕信

化主 裕信

化主 裕信